

中國의 個人 藏書 文化에 對한 考察*

서 원 남**

차 례

1. 서론
2.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 발전과 문화적 배경
 - 2.1 고대 중국의 개인장서의 발전
 - 2.2 장서가들의 장서 활동에 대한 문화적 배경
3. 개인 장서활동에 나타난 문화적 특징
 - 3.1 고대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
 - 3.2 장서 계층에 보이는 우월성 문화
 - 3.3 상호 보완 관계를 지닌 다원화된 문화
 - 3.4 지리적 특성이 가미된 지역 중심의 장서 문화
4. 결론

1. 서론

중국은 세계 4대 문명국 가운데 하나로 매우 오래된 장서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장서를 시작했고 장서를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장서 활동은 역대로 국가, 개인, 사찰, 서원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수천 년 중국 문명 발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가운데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 문화는 중국문화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동시에 연구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통계에 의하면 역대 중국의 개인 장서가는 총 1175명에 달하는데¹⁾, 이 통계는 시대

* 이 논문은 2008년 교비(한양대학교)의 재원으로 'HYU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연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swnyelin@hanyang.ac.kr

적으로 비교적 저명한 장서기들만 수록한 것이며, 각 시대별로 민간에서 전해지는 장서기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개인 장서기들이 활동한 것은 중국 문화사적으로도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다른 장서기들과는 달리 개인들의 장서 활동은 자주적이며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사상적 제약을 덜 받았기 때문에 소장 서적의 내용이 다양하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개인들의 장서는 규모면에서 비록 정부나 서원 등의 장서에 비하여 작지만 아주 탄력성을 지니고 있어 역대로 매우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명력은 바로 고대 전적의 계승과 전통 문화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청대 장서가 윗층은 장서기들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장서의 분위기가 만연하면 사회적으로 독서를 하는 분위기도 따라서 흥한다. 학문을 좋아하고 책 구함에 힘쓰는 선비들은 종종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책을 빌리곤 하였다. 혹자는 이리저리 전전거리며 부탁하여 책을 빌려다가 필사하였고, 심지어 혹자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책을 구입하였다. 집이 있어도 가난하지만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구하기 어려운 서적들을 필사하여 암송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이름난 장서가가 되었다. 진본과 다른 판본의 서적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것을 바로 잡는 교수학이 성행하였는데, 높은 학문과 행실이 바른 선비들은 대부분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서적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옛 서적을 열독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전적들도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전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서적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혹자는 기록된 문장이 다른 것을 비교하고 바로 잡아 전대 학자들의 잘못과 실수를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학술계에서는 옛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사실을 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장서기들 가운데 유력자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총서로 만들어 천하 사람들에게 모두 미치도록 하였다.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전해져 오면서 귀한 책들로 변한 것만도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그 혜택을 입은 학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²⁾

1) 叶昌熾, 『藏書紀事詩』(中國:上海古籍出版社, 1989), 10쪽.

2) (藏書之風氣盛, 讀書之風氣亦因之而興, 好學敏求之士往往跋涉千里, 登門借讀, 或則輾轉請托, 逡錄副本, 甚或節衣縮食, 恣意置書, 每有室有懸磬而棄書充棟者; 亦有畢生以抄誦秘籍爲事, 蔚成藏家者. 假本既多, 校讎之學因盛, 績學方聞之士多能掃去魚豕, 一意補殘正缺, 古書因之可讀, 而自來所不能通釋之典籍, 亦因之而復顯於人間. 甚或比勘異文, 發現前人誤失, 造成學術上之疑古求

근대에 들어서부터 중국학자들은 개인장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과 대표적인 저서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서가 개인의 전기에 대한 연구로 洪有豐의 『清代藏書家考』, 袁同禮의 『私家藏書概略』, 楊立誠, 金步瀛 공저인 『中國藏書家考略』, 潘美月の 『宋代藏書家考』, 鄭衛章, 李萬健 공저인 『中國著名藏書家傳略』 등이다. ②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서가에 대한 전문 연구로 聶光南의 『山西藏書考』, 王獻唐의 『海源閣藏書之損失與善後處置』, 陳登原의 『天一閣藏書考』, 吳晗의 『兩浙藏書家史略』과 『江蘇藏書家史略』, 何多源의 『廣東藏書家考』, 顧志興의 『浙江藏書家藏書樓』 등이다. ③ 장서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 모음집으로 李希泌과 張椒華 공저인 『中國古代藏書與近代圖書館史料』, 徐雁과 王燕 공저인 『中國歷史藏書論著讀本』 등이 대표적이다. ④ 장서와 관련된 통사로 최근에 출판된 任繼愈과 肖東發이 공동으로 편찬한 『中國藏書樓』, 傅璇珠와 謝灼華 공저인 『中國藏書通史』 등이 있다. 게다가 80년대 들어서 도서관학과 목록학 등의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대 개인 장서에 관한 연구도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개인 장서가 중국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개인 장서를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즉, 문화적인 시각으로 고대 장서가들의 장서 문화를 접근하면 더욱 넓은 시야와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개인 장서문화가 지닌 풍부한 내용과 그 깊은 의미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본고에서는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의 발전과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 발전과 문화적 배경

2.1 고대 중국의 개인장서 발전

중국의 장서는 신화와 전설의 시기는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문헌 고찰이 가능한

眞風氣. 藏家之有力者復舉以劓劓, 輯爲叢書, 公諸天下. 數百年來踵接武繼, 化秘籍爲億萬千身, 其嘉惠來學者甚多) 吳晗, 『江浙藏書家史略: 兩浙藏書家史略序言』(北京: 中華書局, 1981)

시기는 아마도 문자 기록과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갑골문 사용에서 금문의 역사까지 모두 문헌학적으로 볼 때 장서 활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장서의 주체가 모두 국가이며 개인 장서의 시작은 더 많은 역사의 발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중국의 개인 장서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춘추시기 공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시작이다. 『史記·孔子世家』에 “공자가 살던 집과 제자들이 쓰던 내실은 훗날 공자의 묘로 만들어져, 공자가 사용하던 의관과 거문고, 수레, 서적 등이 소장되었는데, 그것은 한(漢)나라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 (故所居堂弟子內, 後世因廟, 藏孔子衣冠琴車書, 至於漢二百餘年不絕)³⁾”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공자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공자의 衣冠과 琴, 詩, 書 등을 소장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⁴⁾. 전국시대에 들어서 제자백가의 출현으로 다양한 서적들이 세상에 유통되었고 그 후로 개인들의 장서는 점차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국가 기관의 장서 활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는 몇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춘추말엽에서 동한까지의 시기로 개인 장서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백가쟁명의 문화적 운동을 통하여 六藝, 諸子, 史學, 兵學, 醫學, 天文, 地理 등 많은 도서들이 출현하였다. 비록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많은 도서들이 유실되기는 하였지만, 개인 장서가들의 노력으로 결국 한대에 백가의 서적들이 다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한 무제(武帝) 이후로는 경학이 발달하여 경서들이 대량으로 증가하였고 역사서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서적들은 주로 간독(簡牘)과 백서(帛書)가 주를 이루었는데, 죽간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거워 휴대와 보관이 매우 불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들은 결국 개인 장서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들었다. 물론 서한시기 河間獻王과 동한 蔡邕처럼 많은 서적을 소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장서 활동이 일부 소수의 학자와 사대부에 국한되었다⁵⁾. 두 번째 시기는 개인장서의 발전기로, 위진남북조와 수당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3) 司馬遷, 『史記·孔子世家』(中國:中華書局, 1982), 1945쪽.

4) 공자 이전에도 중국의 장서 활동과 관련된 기록들이 『尙書』, 『禮記』, 『周禮』 등에 나오지만 이러한 기록은 모두 국가의 장서활동에 관한 것임.

5) 徐凌志, 『中國歷代藏書史』(中國:江西人民出版社, 2004), 16~52쪽.

다도 학술이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수당시기에 이르러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따라서 경, 사, 자, 집부의 전적과 불경, 도가의 서적 등 서적의 수량이 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동한 말 蔡倫의 종이 발명은 개인 장서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종이의 발명은 결과적으로 대량의 도서 유통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장서가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고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당대에 들어서는 개인 장서가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장서 활동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다⁶⁾. 이처럼 개인 장서가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됨으로 인해서 개인 장서가들의 활동이 도서의 소장에서 藏書樓를 세우거나 소장 도서에 대한 교감 작업, 장서목록편찬 등의 작업들로 확대 발전하였고, 동시에 도서의 가치와 장서에 대한 인식도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대 개인 장서가들의 흥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송에서 청대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 고대학술문화의 발전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아울러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도서의 편찬을 위한 풍부한 사고를 제공하였다. 즉, 조판인쇄의 보급은 도서의 출판에 있어서 또 한 차례의 혁명으로 인쇄본들이 필사본들을 대체하였고, 그에 따라 대량의 副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 개인장서의 계층이 특정 사대부를 넘어서 향신, 문벌 귀족, 상인에서 일반 독서가들에게로까지 확대 되었다.

이 밖에 개인 장서가들은 많은 도서 소장 기술의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저서들도 세상에 선을 보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지나온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가들은 공공기관의 장서와 비교하여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모든 장서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장서를 진행한 것이다. 물론 일부 장서가들은 그 동기가 매우 순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장서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은 공통적으로 일치한다⁷⁾. 이러한 자각성은 개인 장서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며, 객관적으로 개인 장서 사업의 번영을 촉진하고 전통 문화유산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버팀목이 되었다. 둘째, 개인 장서가들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장서 활동에 참여하

6) 통계에 의하면 당대 개인 장서가 가운데 吳兢은 13,000여권, 蔣義는 15,000권, 書述, 蘇夔, 李承休 등은 각각 20,000만권, 李泌은 30,000권에 달하는 등 만권 이상 소장한 장서가가 16명에 달했고, 그 밖에 저명한 장서가만도 60여명에 달했다. (范鳳書, 『中國私家藏書史』 (中國: 大象出版社), 38~59쪽.

7) 周少川, 『藏書與文化』 (中國: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9), 22~28쪽.

는 계층을 보면 사대부와 관료, 향신과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장서 활동에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서가별로 저술, 교감, 소장, 판매 등 그 목적도 각각 다르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장서가들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맞추어서 장서 활동을 발전시켰다. 즉, 어떤 사람은 장서의 내용을 새로운 지식체계로 전파시켰으며, 어떤 사람은 도서 가운데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기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각기 다양한 종류의 판본을 수집하였고, 어떤 사람은 소장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도서의 유통을 촉진시켰으며 다각도로 장서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셋째, 개인 장서가들은 정서적인 안일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인장서가와 공공기관 장서의 최대 차이는 바로 개인 장서가들은 장서와 독서 등 기본적인 목표 외에도 장서 활동과 그 형식 속에서 정신적인 안위와 내면의 평정을 추구하였다. 송대 장서가 尤袤는 “배가 고프면 책을 읽어 고기를 먹은 것처럼 위안 삼았고, 추위를 느낄 때에는 책을 읽어 두터운 겨울옷 입은 것으로 삼았으며, 고독할 때는 책 읽기로 친구를 삼았고, 근심하고 슬퍼질 때면 책 읽기로 거문고와 비파로 삼았다.(飢讀之以當肉, 寒讀之以當裘, 孤獨讀之以當朋友, 幽憂而讀之以當金石琴瑟)”라고 하였다⁸⁾. 이밖에도 장서가들이 장서각에 이름을 붙인 것과 각종 정서가 가득 담긴 장서 습관들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개인 장서 활동의 풍부한 사상적 감정과 문화적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인 장서가들의 상호 보완성인데, 이는 개인 장서가들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개인 장서의 상호보완 기능은 다방면에서 느낄 수 있는데, 우선 개인 장서가들의 소장 도서는 공공의 장서기관에서 받아 유포 시킨 것이거나 혹은 필사하여 소장하거나 혹은 하사를 받은 것들이 주를 이룬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개인 장서가들 간의 상호 전달과 기록인데, 이를 통해서 사방에 도서를 유통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 이밖에도 개인 장서가들 간에는 소장 도서를 서로 간에 공유하거나 계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 장서가들이 국가 장서기관의 결손을 보충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역대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마다 조정에서 민간으로부터 서적을 수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개인들의 장서가 중국 역대 국가의 장서수립과 복원에 귀중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楊萬里, 『遂初堂書目跋·叢書集成初編, 32冊』(中國:中華書局,1985).

2.2 장서가들의 장서 활동에 대한 문화적 배경

장서라는 작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노력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국의 장서가들에게는 장서를 일생의 사업으로 삼거나 혹은 가업으로 삼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장서가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같이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장서가의 길을 걸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장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장서가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博學과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 한다. 이러한 주장은 서적의 수집과 보관이라는 작업의 특수성에서 보면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개인 장서가들이 도서의 수집과 보관을 위해 많은 시간과 많은 경제적 비용을 기꺼이 들이고 게다가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전하고자 한 배경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고대 중국의 장서가들이 장서를 매우 중요한 문화 활동으로 여긴 배경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 해답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문화에 대한 공유 인식이라는 심리적 작용이다. 즉, 문화에 대하여 장서가들이 공통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표출된 행동 양식의 하나가 바로 고대 전적에 대한 보전이다.⁹⁾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역대로 많은 학자들과 장서가들이 민족문화의 보존과 고양이라는 공통된 정신에 기초하여 서적의 수집과 보관 및 편찬에 온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중국에서 장서 활동이 역대로 크게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독서를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의식이다. 중국 인들은 역대로 독서를 즐거움으로 삼았는데,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사람들은 독서를 사람됨의 근거로 삼아서 독서를 인생 여정의 시작으로 보았다. 예를

9) 『隋書·經籍志』에 「무릇 경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으며, 성현과 철인들의 뛰어난 능력의 표현이다. 이런 까닭에 경적은 천지와 음양의 운전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기강을 바로 잡고 인간의 도덕규범을 널리 펼치는데 사용된다. 그 속에 내포된 여진 도리가 들어오면 천지 만물의 성장과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 경적을 배우지 아니하면 자신의 수양과 발전이 그치게 될 것이다.(夫經籍也者, 機神之妙旨, 聖哲之能事. 所以經天地·緯陰陽·正紀綱·弘道德·顯仁足以利物, 藏用足以獨善, 學者將殖焉, 不學者將墮焉.)」라고 서적이 지닌 전통문화의 응집력을 개괄하고 있다.

들면, 顏之推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不讀書, 難爲人)”라는 말을 가훈으로 삼았으며, 배움을 행하지 않는 백정과 같은 사람들을 “길흥의 대사를 당하게 되면 득실을 논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묵묵부답으로 마치 운무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모여 연회를 가지면서 옛 부와 시를 논하는데,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떨 구고 있거나 하품이나 기지개만 펴고 있을 뿐이다.”(及有吉凶大事, 議論得失, 蒙然開口, 如坐雲霧; 公私宴集, 談古賦詩, 塞默低頭, 欠伸而已.)¹⁰⁾라고 하였다. 또 당대 韓愈는 『符讀書城南』이라는 詩에서 “사람이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음은 마음속에 책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人之能爲人, 由腹有詩書)¹¹⁾”라고 하여 자식들에게 책을 아는 것이 사람됨의 근본이 됨을 가리키고 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蘇軾의 경우 『李氏山房藏書記』에서 “공자와 성인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책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自孔子聖人, 其學必始於觀書)”라고 하여 독서와 학문에 뜻을 두는 것이 성인과 배우는 자 모두 반드시 함께 걸어야 할 길로 여겼다. 남송 장서가 許斐는 중국인들이 독서를 즐겨워하는 것에 대하여 명리를 떠나 매우 담대하게 피력하고 있다. 『梅屋書目自序』에서 “余貧喜書, 舊積千余卷, 今倍之, 未足也. 肆有新刊, 知無不市; 人有奇編, 見無不錄, 故環室皆書也. 或曰: ‘嗜書好貨均爲一貧, 食書而飢, 不若食貨而飽; 食書而勞, 不若食貨而逸. 人生不百年, 何自苦如此?’ 答曰: ‘今人予不知之, 自古不義而富貴者, 書中略可考也, 竟何如哉? 予少安於貧, 壯樂於貧, 老忘於貧, 人不鄙夷予之貧, 鬼不擲吾予之貧, 書之賜也. 如彼百年, 何樂之有哉!’ (나는 가난하나 책을 좋아하여 예전에 천여 권을 모아 두었는데, 지금은 그 수량이 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따름이다. 책방에 만약 새로 인쇄 되어 출간된 책이 있으며 내가 알고서 반드시 가서 샀고, 누군가 신기한 내용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면 나는 보고서 반드시 그 책을 기록하였다. 이런 까닭에 나의 방안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다. 혹자는 “책을 너무 좋아하고 물건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모두 탐하는 것이라고 한다. 책을 탐해서 배를 굶게 되는 것은 물건을 탐하여 배불리 먹는 만도 못하며, 책을 탐하여 고생을 하는 것은 물건을 탐하여 안일한 것만 못하다. 인생은 살아야 백년을 넘지 못하는 데 어찌하여 이렇게 책을 탐낸단 말인가” 내가 대답하기를 “현재의 사람들에 대해서

10) 顏之推, 『安氏家訓·勉學』(中國: 天津古籍出版社, 1995), 61쪽.

11) 屈守元·常思春主編, 『韓愈全集校注』(中國: 四川大學出版社, 1996), 722쪽.

는 그들이 어떠한 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옛날부터 부를 위해서 어질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책속에서도 간략하나마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결과는 또 어떠한가? 나는 젊어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가난함을 대하였고, 장년이 되어서는 가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며, 노년에는 또 가난함을 잇을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우습게보지 않으며, 귀신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비웃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 책이 나에게 준 것으로, 당신이 말한 그런 물건을 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평생을 지내면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명대 장서가 祁承燦은 한대부터 송대까지 도서의 수집을 즐거움으로 삼은 23명을 모아 『讀書訓』을 편찬하여 자식들에게 거울로 삼도록 하였다. 셋째, 후손에게 재물을 남겨주는 것 보다는 책을 남겨주고자 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식교육의 대명사로 유태인을 든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로 유태인의 자식교육을 대변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서도 유태인 못지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장서가들은 자식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서적을 남겨주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학문을 통해서 자식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인들의 오래된 전통 관념 때문일 것이다. 당 초기 李襲譽는 봉록을 받으면 사람을 고용하여 서적을 필사하여 서적을 모았다. 그가 자식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중국인이 왜 장서를 중요시 여겼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두었다: 내게는 경성 근처에 하사 받은 땅 10경이 있는데, 그곳에 농사를 지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하사 받은 뽕나무 천 그루가 있으니 그것으로 누에를 키우면 옷을 입기에 충족하며, 강소에 편찬된 서적이 있으니 그것을 읽으면 관직에 나갈 수 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일을 부지런히 행하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다(嘗謂子孫曰:吾近京城有賜田十頃, 耕之可以充食; 河內有賜桑千樹, 蠶之可充衣; 江蘇所寫之書, 讀之可以求官. 吾沒之後, 爾曹但能勤此三事, 亦何羨於人?)¹²⁾” 송 이후로 이처럼 장서를 재물과 함께 논하는 생각들이 더욱더 강해져서 “遺金滿籩, 不如一經”이라는 생각이 점차 보편화 되었는데, 복송의 장서가

12) 『李襲譽傳』(舊唐書·卷六十三列傳第九).

李疇實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손들에게 황금을 바꾸니에 가득 남아 남겨주는 것이 책 한권을 남겨주는 것만 못하다. 부모님이 이전에 이것으로 나에게 남겨 주셨고, 내가 다시 이것으로 아들에게 전해주시 자손대대로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하물며 더 많은 책을 남겨 주는 것은 말해 무엇하리요. 자신의 부유함이 책에 있고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遺子孫黃金萬籩, 不如一經. 親既以是遺我, 我復以是遺子, 子子孫孫用之不竭, 況滿卷之多乎? 庶幾我之富在此而不在彼也.)” 즉 자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자손을 나태하게 만들지만 책은 지혜를 더하고 나아가 공명을 세울 수가 있다는 유익함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자손대대로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역대로 중국의 장서가들이 서적을 구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견딜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자신의 장서가 대대로 보존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장서가들은 자손들에게 선대의 유지를 받들고 장서를 가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당대 杜暹은 서적마다 가훈을 써서 기록하였는데, “(녹봉으로 책을 사서 손수 교정을 하며, 자손이 이것을 읽고 성인의 도리를 깨닫는다. 책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모두가 불효이다.)淸俸買來手自校, 子孫讀之知聖道, 鬻及借人皆不孝¹³⁾.”라고 하였다. 송 이후로 장서가들이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금하는 내용은 점차 늘어났는데 이는 서적을 잘 보존하기 위함이다. 즉, 책을 재물과 교환하는 것을 금하였고, 책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금하였다. 명대 范欽의 경우는 “天一閣” 설립 초기부터 “대대로 책은 나누어서는 안 되고, 서적은 장서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代不分書, 書不出閣)¹⁴⁾”라는 族訓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 도서의 유실을 막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지만 종종 서적의 보급을 저해하였다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다. 청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규정들이 점차 확산되었는데, 海源閣의 楊以增은 자손들에 훈시를 통하여 “變世相傳, 珍秘逾恒”하도록 하였으며, 石筍館의 주인 楊繼振도 자손들에게 “勿以鬻錢, 勿以借人, 勿以貽不肖子孫¹⁵⁾”이라는 말로 자손들에게 장서에 있어 금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결국 명청 시대의 개인장서는 주로 소장이라는 면에 무게를 두었음을 알 수 있

13) 孫寶瑄, 『忘山廬日記』(中國:上海古籍出版社, 1983), 546쪽.

14) 單立新, 「范欽與天一閣」(中國:古籍整理研究學刊, 2004년 제6기), 93~94쪽.

15) 叶昌熾, 『藏書紀事詩』(中國:上海古籍出版社, 1989), 84쪽.

다. 이러한 심리적 자세를 견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찾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즉, 당시 봉건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농업이 위주이며 게다가 집집마다 폐쇄적인 형태의 생산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자연스럽게 장서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¹⁶⁾.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가 지닌 문화적 배경은 중국 전통문화의 축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개인 장서활동에 나타난 문화적 특징

3.1 고대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

고대 중국의 봉건시대에 있어 개인장서 활동은 일종의 독특한 문화현상이며, 이것은 동시대의 사회경제, 정치, 학술문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봉건사회의 농업경제 구조는 장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즉, 중국 봉건사회는 생산력이 매우 낮고 경제적 기초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에게는 자급자족, 상호간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협조를 배척하는 자족의 심리적 상태가 생겨났다. 이러한 경제기초의 취약은 필연적으로 개인들의 장서 규모나 장서의 유통 상황을 제약하였지만 결국 폐쇄적인 소규모 농업경제의 자족 심리는 필연적으로 개인장서의 태동을 낳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발전은 도서의 생산과 소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¹⁷⁾. 역사적으로 중국경제의 중심이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추세 전환점은 양송시기이다. 남송이후, 동남지역인 절강 일대가 경제 중심지가 되었는데, 수공업과 상업이 모두 번영하였고 민간 경제도 점차 발전해 나갔다. 경제의 번영은 그 지역의 학술문화의 발전과 도서출판 사업의 흥성을 가져왔고, 민간경제의 흥성은 개인 장서가들의 행위 주체를 점차 사대부 이외의 계층으로 파급시켰

16) 桑良至, 「藏書與經濟發展」(中國:安徽大學學報, 1997년 제2기), 69~72쪽.

17) 桑良至, 「藏書與經濟發展」(安徽大學學報, 1997년 제2기), 66~68쪽.

다. 『浙江藏書家史略』의 통계에 따르면 절강 지역의 장서가는 399명, 강소 지역의 장서가는 4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지역 모두 송대 이후에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¹⁸⁾.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저명한 장서가가 약 47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절강과 강소 두 지역이 각각 1062명과 967명을 차지하여 3위인 산동의 485명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이러한 수치는 바로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가 지닌 지역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로 개인 장서가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으로는 양송, 지역적으로 강소와 절강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장서가 경제와 학술문화의 발전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두 번째, 정치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집권제를 추구하는 봉건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문화 전제정책이 뒤따랐다. 여타 사회 활동과 유사하게 개인 장서활동도 봉건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되는데, 따라서 필연적으로 장서의 내용과 범위도 봉건 통치의 요구에 부합해야만 한다. 즉, 국가는 개인 장서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개인 장서활동의 생존권이 완전히 국가의 손아귀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시황의 분서이다. 진시황 분서 이후에도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금서 조치들이 줄곧 끊이지 않았다. 설령 문화정책이 비교적 진보적이었다고 평가되던 송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 청대에 이르러서는 대형 문자옥과 대규모의 금서 조치가 내려졌는데, 건륭시기의 『四庫全書』 편찬은 그 본질이 바로 문화에 대한 전제조치이다. 정부에서 수집한 도서 가운데 개인들의 장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편찬과정에서 청조의 통치에 불리한 서적은 전부 없애거나 혹은 일부 해당 부분을 없애거나 내용을 바꾸어 많은 서적들이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됨으로 해서 일시적이거나 개인 장서의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인 사회적인 측면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장서의 활동은 과학기술, 특히 출판과 관련된 과학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대표적으로 제지기술과 인쇄술의 발명이 고대 개인장서의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한 채륜이 제지기술을 발견하기 전 도서인 간독이나 백서는

18) 吳 晗, 『浙江藏書家史略』(中國: 中華書局, 1981). 186쪽.

19) 范鳳書, 『中國私家藏書概述』(中國: 寧波出版社, 1996). 60~62쪽.

보존이라는 면에서는 매우 불편하였고, 가격이 매우 높은 이유로 개인 장서활동이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반해서 채륜의 종이 기술의 발전은 도서유통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육조시기에 이르러 서적의 유통량을 크게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서가들의 장서의욕도 크게 고취시켰다. 따라서 이 시기 개인 장서가들의 서적 보유 수량이 대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개인들의 장서활동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일종의 보편적인 문화현상이 되었다. 송대는 조판인쇄술의 보급과 활자 인쇄술의 활용으로 인쇄본들이 필사본을 대체하여 동일 서적의 복사본이 크게 늘어났으며 원가의 절감도 가져와 대량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도서의 대량 생산과 복제 기술의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짐으로서 개인 장서활동이 번영과 흥성의 시기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다²⁰⁾. 결국 이 두 발명은 고대 개인 장서발전사에 있어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 고대 중국의 개인장서 활동이 규모면에서나 수준면에서나 모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활동은 당시의 경제, 정치, 학술문화와 기술 등 여러 조건과 상황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발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장서라는 중국 봉건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불거리를 탄생시켰다.

3.2 장서 계층에 보이는 우월성 문화

역대 개인들의 장서 활동은 그 주체가 문인 사대부 이지만 계층 분화 현상에 개인의 학문적 취향이 결합한 독특한 품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의 이름난 장서가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주로 문인사대부 계층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역대 장서가 가운데 8~90%가 독서가들이며, 이 가운데 박학다식한 학자와 정치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²¹⁾. 비록 명대이후로 개인들의 장서활동이 사대부 계층을 벗어나, 향신, 문벌귀족, 상인, 무인으로까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주체가 여전히 문인사대부 계층에 집중되었다. 청초 저명한 장서가인 黃宗義, 錢謙益, 黃虞稷, 徐乾學, 朱彝尊, 王世貞 등 모두가 유명한 대

20) 李瑞良, 『中國出版編年史』(福建人民出版社, 2006), 247~251쪽.

21) 周少川, 『藏書與文化』(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5), 11~15쪽.

학자나 혹은 문단의 영수였다. 또 청대 중엽의 盧文弨, 鮑廷博, 黃丕烈 등은 모두 건학학파의 명사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즉 문인사대부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 조건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계층이 받는 교육 정도와 문화적 품격이 다르다는 것이다²²⁾. 앞서 언급 하였듯이 이러한 계층적 특징은 개인 장서가들의 학문 활동과의 연관성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도서는 역대로 전해지면서 필사의 오류 또는 판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그 교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따라 절대 다수의 능력 있는 장서가들은 소장과 함께 그와 관련된 구입, 감별, 교감, 보충 초록, 인쇄, 보호 등의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 이로 인해 송대 이후의 장서가 가운데는 학술수준이 매우 높은 교감, 판본, 집일, 고증, 목록 분야의 대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장 도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평생 동안 교감과 도서정리에 투신하여 중국의 학술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개인들이 편찬한 장서목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 최초의提要 목록서인 『郡齋讀書志』, 판본 목록서인 『直齋書錄解題』와 『遂初堂書目』, 『千頃堂書目』, 『天一閣藏書目錄』, 『百川書志』, 『世善堂藏書目』 등 160여종에 달한다.

3.3. 상호 보완 관계를 지닌 다원화된 문화

관부의 장서와 비교하여 개인 장서는 독특한 다원화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개인 장서 활동은 관부의 장서활동과 함께 중국 전통 문화 가운데 독특한 장서 문화를 구성하였다. 고대 장서활동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양자가 서로 각각의 나름대로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가 상호 보완이라는 관계가 있지만,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吳晗은 『江浙藏書家史略·序言』에서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장서는 대부분이 정치적 상황의 성쇠에 따라 부침을 달리 하였으며, 게다가 도서의 수집과 정리도 절대적으로 관청에만 의지

22) 徐凌志, 『中國歷代藏書史』(江西人民出版社, 2004). 351~353쪽.

하였다. 따라서 문자의 오류를 정교하게 바로 잡는 작업이나, 서적의 진위를 감별하는 작업, 서적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 또한 결코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심지어 혹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장서각에 숨어 지내며, 다만 좀 벌레 마냥 지내는 것에 빠져 지내다, 세월이 지나면 끝내 사라져 버린다. 서적의 출판이 흥하고 개인 장서의 분위기가 일어나고부터는 훌륭한 인품과 올바른 도를 갖춘 사람들이 대대로 전해지게 되고, 이들은 사서와 경서에 파문혀 마침내 대대로 전해지는 학문을 이루었다. (大抵政府收藏, 多隨政治局面之隆替而興廢, 且其采掇, 僅凭官司. 無論精校丹黃, 卽鑑別眞贗, 品評得失, 亦絕不可得. 甚或深幽寬闊, 徒飽蠹魚, 日蝕月消, 終歸湮滅. 自板刻興而私人藏書乃盛, 其中風流儒雅, 代有聞人, 宿史枕經, 篤成絕學.²³⁾” 비록 오함이 개인 장서의 뛰어난 점을 칭찬하며 상대적으로 관부의 장서를 낮게 평가한 점은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장서와 관부장서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개인 장서만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화적 결정체인 전적의 보존 기능으로, 국가 장서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보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재, 화재, 충해 등 자연재해와 전쟁, 도매, 금서 등 인위적 요인들로 인한 훼손으로 생긴 국가 장서의 결손을 보충하였다. 왜냐하면 왕조 교체시기에 특히 가장 먼저 화를 당하는 것이 바로 서적인데, 그 중에서도 관부에 소장된 도서들이 받는 피해는 훨씬 심각하다.²⁴⁾ 이에 반해 개인장서자들은 활동과 소장이 모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호 병합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앞서 언급한 인위적 요인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갔다. 왕조가 바뀌면 민간

23) 王余光, 『中國文獻史』(中國: 武漢大學出版社, 1993). 106쪽 재인용.

24) 隋文帝 秘書監 牛弘은 수 이전의 5섯 가지 도서 유실 상황을 지적하였다. 첫째가 기원전 213년 진시황의 금서 조치로 선왕의 도서들이 모두 소실된 것, 둘째 왕망 말년 赤眉의 난으로 궁실의 모든 도서가 타서 재가 된 것, 셋째 동한 말년 董卓이 獻帝를 데리고 수도를 옮기며 洛陽을 불태웠는데 이때 국가의 많은 장서들이 불에 타 재가 된 것, 넷째 서진 말년 劉石의 난으로 비각의 장서들이 유실된 것, 다섯째 남조시기 侯景의 난과 “周師入郢”으로 인해 국가의 서적과 개인 서적들이 하루아침에 많이 유실된 것을 지적하였다. 牛弘에 이어 明代 胡應麟이 계속해서 수에서 명에 이르는 시기의 도서 유실을 지적하였는데, 여섯째 수 말기 楊光이 강도에서 피살되고 큰 혼란 속에서 도서들이 불에 탄 것, 일곱 번째 당 천보(天寶) 년간에 일어난 안사의 난으로 인한 무수한 서적의 유실, 여덟 번째 당말 황소의 난으로 인한 도서의 유실을 지적하였고, 아홉 번째 북송 말년 “靖康之災”로 금에 의해 開封 함락되면서 빛은 도서의 유실, 열 번째 南宋시기 몽고군이 臨安을 공격하여 많은 도서를 빼앗아 간 것 등을 지적하였다.

소장 도서들에 대한 수집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 무제가 민간 헌서의 길을 연 것과 청대 『四庫全書』 편찬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소장된 서적들을 수집한 것이다. 『四庫全書』의 경우 수록된 도서 가운데 많은 부분이 민간의 개인 장서가들의 소장본을 헌납 받은 것이다. 당시 浙江 巡撫가 宁波 范欽의天一閣에서 602종의 도서를 취해서 헌상하였는데 그 가운데 95종이 사고전서에 수록되었고 378종이 存目에 수록되었는데, 당시 范欽처럼 5~6백종의 도서를 진상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4명에 달했고 백종 이상을 헌서한 사람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²⁵⁾. 이외에 매번 전쟁으로 인해 정부의 소장 도서가 유실되면 민간의 개인 장서가들의 소장도서가 첫 번째 수집 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장서활동은 확실히 도서 전적의 피해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대부들에게 과감하게 개방하여 지역적으로 학풍과 학파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고대에는 갖가지 이유로 일반 선비들이 정부의 장서각에 들어가 서적들을 열람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대신에 개인들의 장서각에서는 모든 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서적을 자유롭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소장 도서들의 외부대여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장서가들은 장서뿐만 아니라 출판에도 참여하여 소장 선본 도서를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출판 활동은 도서의 계승과 유포 및 문화지식의 보급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명대 장서가이자 출판가인 毛晋은 명 만력(萬曆)에서 청 순치(順治) 연간 약 40년 동안 600여종의 서적을 출판하였는데, 그가 심혈을 기울여 출판한 서적들은 질적인 면에서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현실화되어서 당시 강남지역의 사대부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²⁶⁾. 이로 인하여 중국에는 모진과 같이 공익성을 강조하는 장서가들이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개인장서가들의 활동이 왕성한 지역은 학술 문화도 비교적 번성하여 장서와 학술이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양개초의 경우 『中國近三百年學術史』에서 명말 청초의 개인 장서가들의 활동이 학술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며 장서가 후대 학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활동 이었다고 강조하였다²⁷⁾. 또 蔡尙思는 명말

25) 葉德輝, 『書林清話』(中國: 北京古籍出版社, 1957), 143쪽.

26) 曄樹聲·余敏輝, 『明清江南私人刻書史略』(中國: 安徽大學出版社, 2000), 147~150쪽.

27) 梁啓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中國: 東方出版社, 1993), 12쪽.

청초 절강 지역의 장서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은 “浙東學派”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절동학과 가운데 중요한 인물은 거의 모두가 절강 지역의 저명한 장서가로 그들의 학술적 성과는 장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黃宗羲, 萬斯同, 全祖望 등이다²⁸⁾. 세 번째는 서적 보존 기술의 발전이다.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로 인한 도서들의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장서가들은 정부 기관의 도서 소장 기술을 배우고 나아가 민간의 경험들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도서보존 방법들을 갖추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햇볕에 말리기와 약초를 사용하여 벌레는 퇴치하는 방법 등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天一閣이 수백 년 동안 그 모습을 지켜온 것도 그들의 엄격한 관리체제와 보존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넷째, 고대 중국의 개인장서가들은 특별히 장서각의 건축 예술미를 매우 추구하였다. 정부의 장서각과는 달리 개인들의 장서각은 건축 양식이나 누각의 형태, 서적을 보관하는 서실의 다양성 등에서 뛰어난 예술미를 추구하였다. 명대 장서가 范欽의 “天一閣”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일각은 명 嘉靖 말년에 세워져 간간히 보수작업이 진행되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원래 모습 그대로를 지니고 있는데, 방 칸수, 지주의 길이와 넓이 및 크기 등은 모두 중국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²⁹⁾. 또 청 건륭시기에 『四庫全書』를 보관하기 위해서 세워진 文源閣, 文津閣, 文淵閣 등 7개의 장서각이 모두 天一閣을 본 따 세운 것이다. 이처럼 중국 역대 개인 장서각의 건축은 장서의 역사를 연구하는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 건축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물로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³⁰⁾.

3.4 지리적 특성이 가미된 지역 중심의 장서 문화

상고시기로부터 秦·漢·隋·唐을 거쳐 북송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화의 중심은 황화 유역이었다. 중원문화의 핵심지역은 서안과 낙양, 개봉으로 당시 정치 문화의 중심 지였다. 따라서 문화 활동으로서의 개인장서는 대부분 중원일대에 집중되었다. 일찍이 전국시기에 경제문화가 발달한 중원지역에서 개인 장서가들이 출현하였다. 예를

28) 蔡尚思, 『中國文化史要論』(中國: 湖南人民出版社, 1980), 16쪽.

29) 李希泌·張華, 『中國古代藏書與近代圖書館史料』(中國: 中華書局, 1982), 428~436쪽.

30) 王余光, 『藏書四記』(中國: 湖北辭書出版社, 1998).

들면 목자에서 “今天下之士，君子之書不可勝載。”라고 하였고, 『史記·六國年表』에 “진나라는 천하를 합병한 후에 천하의 시경과 서경을 불살라버렸는데, 특히 제후국의 사기가 가장 심하였다. 이는 여기에 진나라를 풍자한 말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경과 서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책은 대부분이 민가에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秦既得意燒天下詩書，諸侯史記尤其，爲其有所刺諷也。詩、書之所以夏見者，多藏人家)”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은 秦孝公, 秦始皇의禁書와 焚書를 겪었지만 민간에 여전히 장서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기원전 191년 한 혜제(惠帝)가 정식으로 협서 금지령을 해제하자 민간의 장서는 합법화가 되었으며, 마침내 진나라 옛 지역에 밀봉되어 보관되어온 장서들이 세상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武帝 때에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수많은 서적들을 수집하여 河間獻王 劉德, 淮南王 劉安, 楚元王 劉向부자, 董仲舒, 蔡邕 등과 같은 장서가들이 생겨났다. 위진남북조 이후로 장서 지역이 다소 변화가 생기는데, 장서의 중심지가 남쪽으로 확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촉 지방의 向朗, 서진 남쪽의 褚陶, 范平, 葛洪 등이 모두 남쪽 지역을 대표하는 개인 장서가들이었는데, 특히 범평은 처음으로 錢塘 지역의 학풍을 일으킨 사람으로 대표적인 장서가였다. 『晉書』에서 “집안 대대로 학문을 좋아하여 서적이 7천여 권에 달했으며,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자 오는 사람이 항시 백여 명에 달했다(家世好學, 有書七千餘卷, 遠近來讀者, 恒有百人)”라고 기록하고 있다³¹⁾.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 분열의 시기로 특히 “永嘉之亂”이 있는 후에는 조정을 따라 많은 인구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인구 이동은 중국 장서 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면 북쪽의 지식인들은 종종 서적을 휴대하고 다녔는데 이러한 행동은 남쪽 기존 개인 장서가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불어 넣었다³²⁾. 남북조시기에는 5호16국의 난으로 개인 장서 활동이 급속도로 쇠락하다가 北魏 이후에 점차 회복되어갔다. 北魏의 李謐, 高閭, 李彪, 北齊의 李業興, 邢子才, 北周의 賀拔勝, 黎景熙 등 모두 북방에서 이름난 장서가들이다. 宋・齊 두 시기에는 沈亮, 劉善明, 柳世隆, 崔祖慰, 賈淵 등 비교적 유명한 장서가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북방 사람들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梁 元帝가 천하의 비적들을 江左에 모으고 소명대자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文選』을 완성한 뒤로

31) 房玄齡等著, 『晉書』(卷九一, 列傳第六十一).

32) 王會昌, 『中國文化地理』(中國: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2), 30~42쪽.

남쪽에서 개인 장서가들의 활동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沈約, 王僧儒가 대표적인 江浙지역 사람이다. 송대는 중국의 문화중심이 황하유역에서 완전히 장강유역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물론 문화적 수준을 논하자면 중원 지역이 여전히 우세하였지만, 당시 동경(개봉)지역의 太學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학생 수가 3800여명에 달했고, 崇文院은 국가 도서관이며 저명한 개인 장서가만도 10여명에 달했다. 예들 들면 북송의 대장서가인 宋綬부자는 소장 도서가 수 만권에 달해 당시에 많은 선비들이 책을 빌려가기 위하여 일부러 宋綬 가택의 주변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일대의 집값이 배나 오르기도 하였다.³³⁾ 『宋代藏書家考』에 수록된 126명의 장서가들을 지역 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북송의 경우 하남 10명, 하북 5명, 산둥 1명, 산서 2명, 섬서 1명, 절강 8명, 강소 9명, 강서 11명, 복건 5명, 안휘 4명, 사천 3명, 호북 1명, 호남 2명 등 모두 62명이다. 남송은 하남 3명, 하북 1명, 산둥 4명, 절강 23명, 강소 9명, 강서 4명, 복건 7명, 안휘 3명, 사천 4명, 호북 2명 등 모두 60명이다³⁴⁾. 위의 통계 수치로 보면 북송시기 개인 장서가가 남송에 비해 약간 많은데 이는 북송 시기가 비교적 경제문화의 상승 단계에 있었으며, 특히 북송 통치자들이 문을 중시하고 무를 경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서 많은 지식인들이 생겨났고 이는 결국 개인 장서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정강의 난 이후로 남송이 임안에 수도를 정하면서 정치 문화의 중심이 남쪽으로 옮겨갔고, 북쪽의 많은 문인 학사들도 조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절강 일대는 개인 장서가들이 양송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명대 개인 장서가는 총 245명이며, 이들을 지역적 분포에 따라 나누어보면, 강소(135명), 절강(51명), 강서(7명), 복건(7명) 등 4개 지역이 200명으로 전체 82%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같은 시기 북쪽 지역은 전쟁의 영향으로 개인 장서가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산서 6명, 하북 5명, 산둥 3명, 하남 4명 등 4개성에 18명으로 전체 가운데 7%에 불과하고, 남쪽의 4개 성과 비교해도 숫자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³⁵⁾. 이것으로 볼 때 양송시기 개인 장서의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명대에 와서는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대는 개인 장서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특

33) 虞浩旭, 『浙東歷史文化散論』(中國: 寧波出版社, 2004), 20쪽.

34) 潘美月, 『宋代藏書家考』(中國: 學海出版社, 1980), 58~65쪽.

35) 桑良至, 「藏書與經濟發展」(中國: 安徽大學學報, 1997년 제2기), 66~72쪽.

히 아편전쟁 이전이 크게 성행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 장서가가 455명이며, 이 가운데 절강 170명, 강소 145명, 광둥과 안휘가 각 9명, 복건 7명, 호남과 호북이 각각 5명, 상해 4명, 강서, 귀주 각 1명, 산서 15명, 산둥 14명, 허북 12명, 허남 4명, 동북 삼성 8명, 섬서 3명, 지역연고가 불분명한 사람이 24명이다³⁶⁾.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보면, 청대 개인장서가들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매우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도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명말의 장서 열풍의 영향이며, 둘째는 청 왕조에서 진압과 회유 양면 정책을 실시한 결과이며, 셋째는 안정적이고 번영된 사회적 환경이며, 넷째는 청대 학술 사상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아편전쟁 이후로 중국은 전국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이어져 경제가 점차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결국 봉건사회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탄생한 개인 장서각들을 점차 해체의 길로 몰고 갔으며, 대신 공공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이끌어 내었다. 당시 개인 장서가들의 도서 귀속은 몇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가 전량 국가에서 구입하였는데 丁丙의 “八千卷樓”에 소장된 서적이 그 예이다. 둘째, 소장 서적의 반은 증정하고 반은 판매하는 경우로, 瞿氏의 “鐵琴銅劍樓”가 해당되는데 소장된 선본은 모두 증정하고 나머지는 가격에 따라 국가에서 구매하였다. 셋째는 공공도서관에 기탁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것이 張元濟의 “涉園”에 소장된 서적으로 모두 圖書館에 기탁하였고, 徐行可의 경우는 소장 도서를 모두 湖北省圖書館에 기증하였다. 넷째, 소장 도서를 전부 기증하는 경우인데, 梁鼎芬의 경우 소장 도서를 전부 廣東省圖書館에 기증하였다. 다섯째, 외국으로 유출된 경우인데, 陸心源的 皕宋樓와 葉德輝의 觀古堂 장서가 대표적이다³⁷⁾. 종합해보면 문화지리적 분포에서의 개인장서의 특징은 하나의 중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며, 동시에 주변지역의 장서도 또 그 지역의 중심 지역에 의존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산과 중심으로의 이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 중심의 개인 장서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장서 지역은 중심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 혹은 몇 개의 중심 도시들은 대부분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등에서 중심 기능을 담당한 도시들이다.

36) 謝灼華, 「清代私家藏書的發展」(中國: 圖書情報知識, 2000년 3월), 16~20쪽.

37) 來新夏, 『中國近代圖書館事業史』(中國: 上海人民出版社, 2000), 220~226쪽.

4. 결론

중국의 개인 장서 활동은 역대로 발전되어 내려오는 우수한 문화전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고대 중국의 개인 장서활동이 문화 생활에 투영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역대 개인 장서활동은 당시 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 척도이다. 서적은 인류 사회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고 나서야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서적 자체가 바로 인류 문명의 산물이다. 선진시기 개인 장서 활동을 시작으로 한대에 이르러 정부의 적극적인 도서 정리 작업으로 장서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졌다. 뒤이어 수대 과거제도의 시행과 당대 인쇄술의 발달은 개인 장서의 흥성에 사회문화적 배경과 견실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서양의 선진화된 인쇄술의 도입으로 중국 전통의 조판인쇄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서적 형식인 선장본이 평장본과 정장본으로 바뀌었다. 또 신문화운동으로 백화문이 보급되어 서적의 내용과 체제가 더욱 다양성을 띄게 되었고 장서가의 수와 장서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개인 장서도 그에 따라 확대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에서 개인 장서 활동의 흥성은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상고시기부터 진한수당을 거쳐 북송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 문화의 중심은 시종 황하 유역이었다. 중원문화의 중심지는 당연히 당시 정치의 중심지인 서안-낙양-개봉이었으며 개인장서도 주로 이들 중원 지역에 집중되었다. 수당 통일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문화는 다시 장안과 낙양이 중심이 되었다. 앞서 본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당대 개인 장서가들 25명 가운데 지역별로 서안 14명, 낙양 3명, 산둥 3명, 산서 1명, 사천 1명, 미연고자 3명 등으로 나타나 수당 이전 중국의 개인 장서는 북쪽이 남쪽에 비하여 발전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송대는 중국 문화의 중심이 황화유역에서 장강 이남지역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남방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고, 또 남방 문화의 흥성으로 제지업의 보급과 독서 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남방 지역의 인쇄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송 이후로는 浙

江, 四川, 福建 등이 장서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인쇄 외에도 서적 판매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송 이후로 남방지역은 인재의 배출이 끊이지 않았으며 개인장서가들의 밀집지역으로 성장하였다. 명대 개인장서가 245명 가운데 강소, 절강, 장서, 복건 등 4성의 장서가 숫자가 전체 82%에 달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명·청대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점은 장서의 흥성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개인 장서 활동은 전적과 우수한 전통문화의 지식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진시황의 분서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대량의 금서들을 땅굴이나, 산의 동굴 속에 숨겨 놓았는데 이는 전적의 보존에 매우 중요한 불씨가 되었다. 또 서한 무제시기의 헌서를 통해 많은 도서를 수집하였는데 대부분이 바로 분서의 화를 피해 소장되었던 선진의 전적들이었다. 이러한 서적을 기초로 한대 국가 장서의 기틀이 세워졌다. 또 송원시기 刻本을 예로 들면, 현존하는 송원시기의 각본은 어느 것 하나 장서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밖에 개인 장서자들은 다른 사람의 서적을 빌려서 초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적을 보존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민간의 소장 도서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도서의 유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개인 장서는 판본 교감학 태동의 씨앗이 되었다. 판본교감학은 서적이 많아지고 진위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학문이다. 장서가들 교감을 장서 정리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겼고 대부분 교감을 통해서 서적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소장한 서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적의 교정에 온 힘을 쏟았다. 청초 장서가 孫從添의 『藏書紀要』, 청말 장서가 擘德輝의 『藏書十約』에는 서적의 교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서가들이 교감 작업을 장서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많은 장서자들은 자신의 소장 도서를 이용하여 고적의 교감 작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인장서 활동은 역대로 하나의 문화 사업으로 서적의 보존과 전파뿐만 아니라 학술의 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중국 전통 문화의 창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끝으로 본인의 장서문화에 대한 공부가 일천한 관계로 스스로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앞으로 중국의 장서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曹之, 『中國古籍編纂史』, 武漢大學出版社(1999)
- 叶昌熾, 『藏書紀事詩』, 上海古籍出版社(1989)
- 許磅生, 『古代藏書史話』, 中華書局(1987)
- 吳晗, 『江浙藏書家史略: 兩浙藏書家史略序言』, 中華書局(1981).
- 劉國進, 『中國上古圖書源流』, 新華出版社(2003),
- 司馬遷, 『史記·孔子世家』, 中華書局(1982).
- 徐凌志, 『中國歷代藏書史』, 江西人民出版社(2004),
- 范鳳書, 『中國私家藏書史』, 大象出版社(2001).
- 周少川, 『藏書與文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9년,
- 楊萬里, 『遂初堂書目跋』(叢書集成初編, 32冊), 中華書局(1985).
- 劉渝生, 『中國藏書起源史』, 江西人民出版社(1994).
- 顏之推, 『安氏家訓·勉學』, 天津古籍出版社(1995),
- 『李襲譽傳』(舊唐書·卷六十三列傳第九).
- 孫寶瑄, 『忘山廬日記』, 上海古籍出版社(1983),
- 叶昌熾, 『藏書紀事詩』, 上海古籍出版社(1989),
- 歷代刻書概況, 印刷工業出版社(1991),
- 范鳳書, 『中國私家藏書概述』, 寧波出版社(1996).
- 馮天瑜, 『明清文化史札記』, 上海人民出版社(2006).
- 吳哲夫, 『四庫全書纂修之研究』, 國立古宮博物院(1990)
- 李瑞良, 『中國出版編年史』, 福建人民出版社(2006),
- 周少川, 『藏書與文化』. 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5),
- 王余光, 『中國文獻史』, 武漢大學出版社(1993).
- 葉德輝, 『書林清話』, 北京古籍出版社(1957),
- 擘樹聲·余敏輝, 『明清江南私人刻書史略』, 安徽大學出版社(2000),
- 梁啓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東方出版社(1993).
- 蔡尚思, 『中國文化史要論』, 湖南人民出版社, 1980,
- 李希泌·張華, 『中國古代藏書與近代圖書館史料』, 中華書局(1982),

- 王余光, 『藏書四記』, 湖北辭書出版社(1998).
房玄齡等著, 『晉書』卷九一. 列傳第六十一).
王會昌, 『中國文化地理』, 華中師範大學出版社(1992),
虞浩旭, 『浙東歷史文化散論』, 寧波出版社(2004),
潘美月, 『宋代藏書家考』, 學海出版社(1980)
擘樹聲·余敏輝, 〈明清江南私人刻書史略〉, 安徽大學出版社(2000),
來新夏, 『中國近代圖書館事業史』, 上海人民出版社(2000),
程民生, 『宋代地域文化』, 河南大學出版社(1997).
黃建國, 高躍新, 『中國古代藏書樓研究』, 中華書局(1999)
廉德生, 『古今圖書收藏指南』, 天津古籍出版社(2001)
胡先媛, 〈中國古代私人藏書的文化地理狀況研究〉, 圖書情報知識(1997. 2)
單立新, 〈范欽與天一閣〉, 古籍整理研究學刊, 2004년 제6기,
桑良至, 〈藏書與經濟發展〉(安徽大學學報), 1997년 제2기,
趙長林, 〈中國藏書家階層流變史〉, 圖書與情報, 2000,
鄭衡泌, 〈中國歷代藏書家籍貫屬地的地理分布和變遷〉, 經濟地理(2004년5월),
桑良至, 〈藏書與經濟發展〉(安徽大學學報), 1997년 제2기,
謝灼華, 〈清代私家藏書的發展〉, 圖書情報知識, 2000년 3월,

<Abstract>

Research on China's Personal Book Collection Culture

Seo Weon Nam

China's library culture has had a crucial effect not just on the government, personal, or private library, but on China's civilization itself in many areas. Personal collection of books began at the beginning of the Chinese Warring States and Unity period and it has constantly advanced through the ages of Han, Wei,

Liu Chao, Sui, and Tang dynasty. Since the Song dynasty, personal libraries have been leading the step of China's library development along with national and private library as well. In addition, personal libraries are important providers that contribute a great amount to the nation's collection of books. Therefore, not only is the volume tremendous, but in case if a war or social confusion arises, the damage will not be big compared to other library facilities, since it i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When taking a look at the successful generation of China's personal library development process, the characteristics that played a beneficial factor to the advancement can be found as well as finding out the origins of their personal collection. The personal library business takes a great amount of proportion and importance in the Chinese culture and as a result, its accomplishments are very visible. When China entered the Chung Dynasty, the development in management of library and the information center along with historical science made many scholars take interest in the field and this stimulated them to research about the area, which brought out many literary works. The productions that were done in this area of study were focused on trying to raise the importance of library culture rather than how much of a proportion it takes in Chinese culture. That is why scholars have done the researches by examining the culture of libraries. In other words, the studies did not just deal with simple basic historical truths about personal collection of books, but it was trying to find the in depth coverage of the abundant cultural meaning that it was containing from the ancient times. As a result,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libraries in Chinese culture, the writing of this research will be focused on the culture's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that is includ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libraries.

Key words : Chinese library culture, personal collection of books (libraries), Ming and Ching Culture, Chinese study in publication, Chinese literature

투 고 일 : 2008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8월 15일